

## 새봄이 오는 소리들 양양의 들녘을 깨우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이정철

새봄이 오는 소리들  
양양의 들녘을 깨우다

가나긴 겨울을 뒤로하고  
양양의 들녘 곳곳에는  
봄이 오는 소리로 가득하다.

봄의 새싹이 피어나는 계절  
충만한 에너지와 행복감이  
이곳저곳에서 솟아오른다.

오색리 산1번지 대청봉에도  
봄의 전령이 한걸음 다가와  
오색케이블카 유치를  
군민들과 함께 기원한다.

지 면 안 내

●2면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필요성 공감”  
●5면 현산공원 휴식공간 탈바꿈

●3면 도약의 날개 펴는 양양국제공항  
●6면 송이밸리 올부터 본격 운영

●4면 양양산불 초동진화로 대형산불 막아  
●7·8면 우리군 기획관리 강화 추진

핵심현안-오색케이블카 추진상황 점검

#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필요성 공감”

환경부·국립공원위원회...식생경관분석 보완 지적

우리군의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시범사업 선정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져 상반기 중 결정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변영회(회장 이일형)는 지난 3일 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정문헌 국회의원을 초청해 오색케이블카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갖고 진행과정을 파악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환경부나 국립공원위원회 모두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재신청에 따라 대청봉과의 이격거리가 늘어난 점 외에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의견과 신청 자료

에 대한 신뢰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고 환경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지난해 3월 1차와 11월 2차 등 두 차례 환경부에 제출한 신청서 모두 각각이 식생조사 위치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데다, 다양한 지점에서 각각도의 경관분석이 필요하지만 상부와 하부정류장 2곳에서만 분석이 이뤄져 조사의 신뢰성과 신청 자료의 충실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에 따라 환경부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부도 오색케이블카 주변지역에 대한 식생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당초 우리

군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재신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보완사항을 주문하지 않은데다, 대상지 범위를 벗어난 조사까지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상철 군수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강원도는 물론 우리나라의 관광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중차대한 관광인프라인 만큼 주도면밀한 사업추진을 통해 반드시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폭설로 중단됐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현지 2차 식생조사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5~6월 중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려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의 미래전략과  
오색케이블카담당 670-2530

## 설악산 대청봉 오색리 산1번지로 변경

상징성 홍보 계기...브랜드 마크로 활용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이 그동안 서면 오색리 산1-24번지에서 산1번지로 변경돼 대내외적으로 그 상징성을 널리 알리게 됐다.

우리군은 최근 산림청 소유인 대청봉이 서면 오색리 산1-24번지로 돼 있어 양양의 상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원도에 지번변경을 요청, 산1번지로 최종 변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토지정보에 대청봉의 지번이 오색리 산1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무엇보다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따른 상징성도 더욱 높아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군은 대청봉이 위치한 임야의 경우,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분할이 생겨나면서 지번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지난해 소유자인 산림청에 지번변경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에 승인을 신청해 이번에 최종 변경 승인을 받게 됐다.

특히 오색리 산1번지 내 소재한 16건의 사용허가지에 대해 정리된 지적공부를 교부하고, 건축물대상이 존재하는 중청대피소는 소관부처인 환



경부와 협의해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양양8경 중 제2경으로 지정된 설악산 대청봉은 지난 1986년 당시 관선이던 이종호 양양군수 재직 시 대청봉 표지석 뒤에 ‘양양이라네’라는 글씨를 새겨 이곳을 오르는 관광객들이 정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부터 등산객들이면 누구나 필수 코스로 사진을 찍는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이번 지번 변경을 계기로 오색리 산1번지로 출발하는 설악산 대청봉이 청정도시 양양군의 브랜드 마크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도시 브랜드 개발과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에도 적극 활용해 시너지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문의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670-2151

## 올해 노인일자리 8억 투입

지난 6일 발대식 가져...534명 선발

우리군은 지난 6일 노인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갖고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은 8억원을 투입해 15개 사업에 총 534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난 2월부터 시작돼 오는 12월까지 추진된다.

주요사업으로는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내고장 자

연생태보존사업, 남대천 맑은 물 지키기 사업, 학습환경지도사업 등 공익형사업에 347명, 아동센터 도우미 학교급식도우미, 문화복지지원사업, 노노케어 등 복지형사업에 133명, 감자떡 생산, 콩나물 재배 등 시장형사업에 25명, 숲해설 및 연어생태해설 등 교육형사업에 10명, 인력교과사업 20명 등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1주일에 3일씩 9개월간 운영되며, 한 달에 2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담당 670-2189



## 의 정 소 식

### “오색케이블카 보완 안전 당부”

우리군의회 제187회 임시회 열려



우리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김일수 의장 주재로 제1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6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으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6건의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오색케이블카 유치지원특별위원회 4차 위원회가 개최돼 오색케이블카사업 재신청 관련,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았다.

김일수 의장은 “환경부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사업지 선정에 안전을 기해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우리군의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사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양사랑회(회장 윤철규)와 해오름포럼(회장 오강현) 공동 주최로 열린 해오름포럼에 의원전원이 참석해 집행부 지휘부와 함께 양양군의 발전방향과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670-2801

## 우리군 추진사업 자체평가 강화

중가평가 실시...등급별 차별화 공개

우리군이 각종 추진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강화해 행정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심사평가제, 군민만족도 조사결과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중앙부처와 강원도 등 23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판단, 올부터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심의 핵심주요과제를 선정해 자체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획감사실 평가통계계가 중심이 돼 정부평가 기본법에 의거해 연 2회, 본청 및 24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지난해(종합평가 100점)와 달리 중간평가(30점)에 배점을 부여,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성과과제 선정시 정부평가 대상업무와 주민관심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도록 하고, 성과지표

개발시 공무원이 얼마나 일했는지의 단순측정이 아닌 업무수행을 통해 결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정량적 지표(불가시 산출지표)를 설정, 추진할 예정이다.

성과지표는 지난해 보다 상향 설정해 목표치 대비 120% 달성시 S등급, 90~120% 달성시 A등급, 80~90% 달성시 B등급, 80%미만시 C등급을 부여하는 등 부서별 평가결과를 종합해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분야별로 알고자 하는 지표를 체계화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는 물론 사업추진 진척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평가통계담당 670-2105

핵심현안-도약의 날개 펴는 양양국제공항

# 국제선 전세기 확대...지역항공사 설립 추진

## 도, 찾아가는 실국장회의 개최...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논의

### 올해 제주노선 취항 계획...공항 면세점 확장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우리군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새해 들어 빨라지고 있다.

도는 지난 2월22일 양양국제공항 회의실에서 최문순 도지사가 주재한 가운데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를 갖고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국제선 전세기를 현재 운항 중인 중국 상하이와 다롄노선 외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동남아, 일본 등으로 확대해 4개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제선 전세기는 중국 석가장과 고아정우, 내몽고 등 6개 노선에 대해 취항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연내 1~2개 노선의 추가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국내선은 현재 운항 중인 김해·광주·김포 등 3개 노선 외 연내 제주노선도 취항, 4개

노선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양국제공항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주 공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강원지역항공사 설립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강원지역항공사는 민관합작에 의한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자본금 400억원(공공 30% 미만·민자 70% 이상) 이상을 투입해 120~189석 규모의 중소형항공기 3대로 운영하되, 국내 대기업이 직접 항공사를 책임경영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도는 또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와 양양공항 취항 협의에 나서고, 국제항로를 개설할 국내외 항공사업자를 시범공모하는 등 국제선 정기편 운항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선 탑승률 향상을 위해 기종을 확대하고, 현

재 50㎡인 공항면세점을 100㎡ 이상으로 확장하는 한편, 품목 다양화와 편의점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 활성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통역원이 상주하는 통합관광안내소 운영을 비롯해 공항내 국내 주요여행사 배치, 순환셔틀버스 운행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설악동 재개발, 동해안 관광벨트 및 경제자유구역 조성, 대형 아울렛과 면세점 조성, 힐링캠프 조성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나서는 한편, 매주 2회 춘천과 속초에서 외국인 맞이 상설공연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우리군도 도의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난달 28일 실무 후속회의를 갖고 통합관광안내소 운영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상철 군수는 “양양국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강원도의 하늘 관문이기에 활성화 정책이 반드시 효과를 보도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올해 탑승객 10만명을 유치해 실질적인 관광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 인재육성사업 전방위 탄력

## 정상철 군수 실현의지...연내 기금 40억 달성 “나가는 교육에서 돌아오는 교육으로”



우리군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인재육성사업이 정상철 군수의 적극적인 실현의지에 힘입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군은 정상철 군수가 취임한 후 향토인재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데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현산 장학회로는 인재육성사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향토장학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장학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통합 운영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해온 향토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새해부터 기금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21억원으로 시작한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양양군의 출연금을 포함해 총 33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군은 올해 5억원

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으로 법인설립 후 기금기탁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연내 40억원은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상철 군수가 출향인들의 다양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통해 국비 확보에 탄력을 받는 등 인재활용이 성과를 거두자, 지난해부터 장학기탁이 줄을 잇는 등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군은 오는 2020년까지 1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300억원을 확보해 매년 지역학생들에게 10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 실질적인 인재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상철 군수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지역을 살린다는 각오로 지속적인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해 그동안 많이 유출된 교육현실을 다시 지역으로 들어오는 교육현장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자치행정과 대외협력담당 670-2451

# 설악산 ‘오색환경산악영화제’ 개최한다

## 8월부터 매년마다...친환경 이미지 제고

우리군이 올해부터 하늘 아래 첫 동네인 오색에서 환경산악영화제를 열어 설악산의 친환경 이미지 및 이용 확산에 나선다.

군은 오는 8월 설악산 대청봉 아래 첫 마을인 오색리에서 제1회 환경산악영화제를 개최해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설악산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환경산악영화제 개최는 국내 대표적인 산악전문지인 ‘월간 사람과 산’이 최근 영화제 개최를 위한 제안서를 우리군에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실무자 협의를 마무리하고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군수실

에서 정상철 군수와 홍석하 월간 사람과 산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휴 협약 조인식을 갖고 향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군은 이날 협약을 통해 ‘문화와 환경’중심지로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매년 오색 환경산악영화제에서 국제적인 지명도를 지닌 이탈리아 트렌토 환경산악영화제의 작품작을 상영해 향후 우리군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함께 독자적인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산악영화제는 야외극장을 이용해 익스트림 암벽 등반, 트리



버스(땅을 밟지 않고 나무를 통해 이동하는 것)스키, MTB, 세계의 고봉등반 다큐멘터리 등 친환경이 이미지에 걸맞은 산악영화 상영해 국민들에게 산악환경 사랑의 마음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케이블카 영화제작과 트렌토와의 자매결연 등으로 연계된다면 양양군의 친환경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미래전략과 오색케이블카담당 670-2530

# 주민들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

## 올해 18억원 투입 1천명 집중 관리

우리군이 올해 18억원을 투입해 노인건강관리를 비롯해 주민진료, 건강검진, 출산지원 사업 등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열악한 진료서비스를 극복하기 위해 연 인원 8만5,000명의 진료를 목표로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진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치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원격 화상진료와 함께 새올행정 알림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투약 일지를 사전에 알려주는 알리

미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을 통해 갑상선, 전립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등에 대한 저소득층 검진사업을 지원하고, 주민과 학생 및 생애전환기 주민에 대한 건강진단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임신부교실과 모유 수유 아산발대회, 영유아 건강검진,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비와 임신부 영양제 지원 및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해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670-2556

### 양양출향인들 지역발전 원동력

재경군민회 등 전국 3,500여명 왕성한 활동

우리군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출향인들과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안사업 추진에 원동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출향인들의 군민화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걸쳐 산재한 출향단체는 재경양양군민회 2천여명을 포함해 8개 단체에서 3,500여명이 가입, 유기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특히 이두순 회장을 중심으로 한 재경양양군민회는 인터넷 카페와 등산대회,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화합을 다지는 한편 '양양군민찾기' 캠페인을 벌여 회원 수도 점점 늘려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출향인들의 '우리 군민화'를 위해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군정주요업무계획과 축제·관광리플릿, 양양소식지 등에 소식을 전해 교류활성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축제 및 군민행사시 출향단체별로 출향인들을 초청,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양양군은 고향발전에 헌신한 출향인에게는 표창 및 감사패도 수여할 계획이다.

재경양양군민회가 주축이 돼 지난 2011년 8월 창립한 해오름 포럼은 지난 18일 정상철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들이 참석, '양양군의회에 바랍니다'라는 주제로 정례모임을 갖고 각종 현안사업 해결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군은 출향인들이 지역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경연락사무소 운영비 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우리군의 각종 위원회에도 관련분야 출향인사들을 적극 위촉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상철 군수는 "각종 행사마다 출향군민들이 보여주는 지역사랑의 마음은 정말 대단한 만큼 이를 통해 우리군의 각종 현안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담당 670-2221

### 양양산불 초동진화로 대형산불 막아

헬기·인원 입체적 진화...24시간 감시태세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양양 현남면 하월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우리군과 소방기관의 입체적인 초동진화에 힘입어 조기 진화됐다.

지난 8일 발생한 산불은 낮 12시 20분경 현남면 하월천리 A오양원에서 소각하다, 이날 강풍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어 대형산불로 이어질 뻔했다.

군은 건조한데다 강풍까지 불어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이날 산불발생 경보가 발령되자, 전 공무원을 소집하고 소방차 10대와 진화헬기 3대를 동원해 현장에 투입, 1시간 20여분 후인 오후 1시 40분경 불길을 잡는데 성공했다.

이날 영동지역에는 초속 12~18m 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초기에는 헬기가 제때 뜨지 못해 산불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내 투입된 헬기가 물을 투하하고 공무원 400여명이 사투를 벌이는 등 입체적인 작전에 나서 조기에 진화했다.

이번 산불의 조기진화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동진화에 대한 준비태세가 잘 갖춰진데다 입체적인 진화도 원활하게 진행돼 대형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아냈다는 평가다.

군은 이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24시간 산불감시 및 출동태세를 갖추는 등 적극적인 대비에 나서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가 요양원에서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불씨가 강풍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과실로 결론이 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건조한 날씨로 인해 높아졌던 산불위험지수는 지난 13일과 19일 내린 눈으로 낮아져 각 지자체는 산불방지에 한숨을 돌렸지만 적설량이 많지 않아 산불방시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문의: 산림농지과 산림보호담당 670-2714

### 사이클경기장 효율적 운영성과

지난해 12개팀 900명 찾아...올해도 전국대회 유치



사이클경기장이 지난해 4개 전국대회를 연데 이어 전국에서 12개팀 900여명이 전지훈련장으로 찾아 효율적인 운영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개장한 사이클경기장은 4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했으며, 연중 전국에서 12개팀 900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이곳을 찾았고 주변의 인조잔디구장은 27회 3천9백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는 KBS배 양양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를 비롯해 도민체전, 소년체전, 실업사이클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국내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며, 안정적 개최 지원을 위해 카메라 중

계 설치대를 확충하고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록계측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다.

또 사이클경기장 벨로드롬 경주로(피스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관리위탁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각종대회 개최 후 발생한 벨로드롬 경기장내 선수대기석의 햇빛 차단막을 연장 설치하고 5천만원을 들여 인조잔디구장의 본부석 지붕도 신축하는 등 편리성을 크게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군은 사이클경기장 조성으로 각종 국제·국내대회의 유치를 통해 사이클 고장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문선수단의 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주변의 인조잔디구장도 방학기간동안 초·중등학교 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문의: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경영담당 670-2634

### 밀레니엄아카데미 특별테마로

우리군이 주민들의 평생학습 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가 올해는 기존의 강좌 중심에서 다양한 테마로 진행된다.

군은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과 위탁용역을 체결하고 매월 운영했던 교양 강좌를 올해는 3·4·6·7·8·11월 등 6회에 걸쳐 해당 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문화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특히 그동안 획일적인 강좌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심도와 참석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해 올해는 6회의 강좌와 함께 가정의 달인 5월과 단풍철 10월, 연말인 12월은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뮤지컬, 연극, 공연 등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특별테마를 접목해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문의: 자치행정과 대외협력담당 670-2451

### 주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만든다



####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제89강 안내

- 일 시 : 2013. 4. 24 (수) 15:00
- 장 소 : 문화복지회관 대공연장 2층
- 강 사 : 정덕희(鄭德姬) 행복충전소 행복지기
- 강연주제 : 정덕희 교수의 그림에도 행복하소서

####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제88강 - 이상벽(방송인)

###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인생 5단계'

우리군에서 실시한 밀레니엄 제88강은 방송인으로 유명한 이상벽씨가 출연해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인생 5계'라는 주제로 강연,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군은 '행복한 학습도시 양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평생학습 문화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88강은 지난 3월27일 오후 3시 문화복지회

관에서 열렸다. 이번에 출연한 이상벽씨는 홍익대 상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 취재부 기자로 재직했으며, MBC TV 주부가요열창, KBS TV신혼은 아름다워, 아침마당, TV는 사랑을 싣고 등에서 MC로 맹활약했다. 현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과 불교TV 이상벽의 이야기쇼를 진행하고 있다.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개강

우리군 소형버스 지원...11개 강좌 12월까지



양양문화원(원장 양동창)은 지난 12일 일출예식장에서 양동창 문화원장과 정상철 양양군수,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문화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문화원은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한글, 한문서예, 한시, 사물놀이(초급, 중급), 통기타(초급, 중급), 한국화, 민요, 난타, 색서폰, 수채화 등 11개 강좌

를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한다. 문화원은 지난해 8개 강좌에 102명의 수강생이 수료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지자, 올해는 난타, 색서폰, 수채화 등 3개 과목을 새로 개설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특히 문화원 이용이 증가하면서 우리군은 올해 문화원에 소형버스 1대를 구입 지원함으로써 문화학교 학생들의 각종 축제공연 및 봉사활동, 향토사 연구 활동, 문화원 기타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어서 큰 도움이 기대된다.

양동창 문화원장은 개강식 인사말에서 "우리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올해도 내실 있는 강좌운영을 통해 생활 속에서 문화적 감흥을 느끼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관람객 유치 총력

우리군 올해 10만명 목표...홍보전 전개

우리군이 올해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람객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관람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7년 개관한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은 지난해까지 45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상춘기를 앞두고 수학여행단을 비롯한 단체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영북권 관광사업체, 관광안내소 등에 홍보용 리플릿을 배포할 계획이며, 이달 중 수도권 및 충청권 초·중등학교 등 전국 5,500개교에 홍보 공문과 리플릿을 발송하는 등 활발한 유치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아이들이 생각

하는 신석기시대 생활상'이라는 주제로 박물관을 탐방하고 보고 느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토기퍼즐 맞추기, 슬라이딩 퍼즐 맞추기, 방문기념 카드 스탬프 찍기, 원시인과 함께 사진 찍기, 선사인 의상 체험, 도구제작 등 다양한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발길을 끌고 있다.

또 박물관 문화학교,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 저소득 청소년 박물관 체험교실,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박물관 답사 등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체험용 움집을 설치, 신석기인들의 생활을 체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시설관리사업소  
선사유적담당 670-2548

# 현산공원 휴식공간 탈바꿈

오는 6월 준공...야외공연장 등 조성



현산공원이 그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군은 오는 6월까지 현산공원의 재정비 사업을 준공하고 역사가 함께 하는 친환경 쉼터로서 도심 속 휴식공간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된 현산공원 재정비 사업은 총 48억6,000만원을 투입, 산책로와 야외공연장 등이 조성돼 주민들의 친밀한 휴식공간으로 모습을 갖췄다.

현재 공정률 75%를 보이고 있는 현산공원은 충혼탑이 있는 A존은 '역사&전통', 고치물샘터와 성황당이 있는 B존은 '문화&축제', 문수사 뒤 국도 44호선 이남지역인 C존은 '자연&체휴' 존으로 조성되고 있다.

특히 고치물샘터와 성황당이 있는 '문화&축제' 존은 친환경 목재데크가 설치돼 현산문화제의 고치물 성황제가 편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야외공연장도 세련

미를 갖춰 연중 주민들의 쉼터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군은 이와 함께 A-B-C존을 순환하는 산책로를 설치하고 10여개의 진입로를 개설, 사통팔달로 근접할 수 있도록 설계해 매년 벚꽃이 만발하는 5~6월이면 많은 주민들이 찾아 여가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산공원 재정비 계획은 지난 2007년 군청 황정운씨(재난방재계)가 국민제안에 응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의 경제도시과 도시개발담당 670-2160

# 제18회 양양군민문화상 후보 공모

4월말까지 문화예술 등 5개 부문

우리군이 '제18회 군민문화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추천부문은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 체육부문 등 5개 부문이며, 자격은 양양군에 거주하거나 본적을 둔 관외 거주자로, 부문별 관계기관장의 공적 증빙서류를 첨부해 추천하면 된다.

부문별 공헌 내용은 △문화예술부문은 문화예술, 교육, 언론, 출판 등 △지역개발부문은 관광, 수산, 상업, 농업, 건설, 농촌개발 등 △사회봉사부문은 사회산

업, 효자효부, 복지증진 등 △학술부문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체육부문은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및 체육인구 저변확대 등이다.

군은 4월말까지 추천접수를 받아 군민문화상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오는 6월 개최되는 제35회 현산문화제 개막식장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670-2728

# 인사 축하 난으로 이웃사랑

군청 동지회...100여개 판매

군청 여직원 모임인 동지회(회장 이영선) 회원들이 지난 인사발령으로 배달된 축하 난 100여개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수익금 1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한다.

동지회는 이달 인사발령으로 각 실과소에 배달된 축하 난을 모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판매한 뒤 수익금 전액을 관내 어

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 11~13일까지 파격세일에 나선 축하 난은 모두 판매됐으며, 매년 같은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돕기에 적극적으로 동참, 미담이 되고 있다.

동지회는 그동안 회원들의 회비로 이웃돕기 봉사활동은 물론 동지책자 발간을 통해 여성공무원들의 권익증진에 힘써오고 있다.

이영선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해 여성공무원들이 더욱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 遊戲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 마-34. 놀림 가락

- 1) 옛 장사(장수)
  - ㅁ 구멍은 찢덕 찢덕.
- 기름장사(장수)
  - ㅁ 구멍은 반질 반질.

명절을 앞둔 어느 겨울날. 달콤한 옛을 고우는 날은 온통 집안이 들썩, 아이들 세상이 됩니다. 부엌에 수없이 드나들며 부산을 땀니다. 미처 되지도 않은 옛물 끓는 가마솥에 몰래 수저로 살짝 떠 올려 입으로 '후후'하며 꿀꺽 삼켜 봅니다. 맛도 몰랐습니다. 녹진한 옛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아끼느라 조금씩 뜯어 입에 넣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손바닥까지 혀로 핥습니다. 그래도 「찢덕찢덕」은 그대로입니다.

기름!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깻묵 우리들의 좋은 간식거리로 충분했습니다. 윤기가 뉘니다. 어쩌다 손등에 묻은 그것은 오늘날의 Hand cream으로도 손색 없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약품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 아니 그 추억 참 좋은 한 토막으로 남았습니다.

# 전통음식학교 개강식

농업기술센터, 4개 과정에 69명 참여

우리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다목적실에서 2013년 양양전통음식학교(일반과정) 개강식을 갖고 전통식문화의 우수성 확산에 나섰다.

우리고유의 전통식문화를 알리고 식생활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양양전통음식학교는 오는 11월 28일까지 8개월 동안 과정별로 주 1회 총 28회 열리며, 떡·한과, 발효저장음식, 전통주



(기초.전문) 등 4개 과정에 69명의 교육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통음식학교는 녹색 식생활을 실천하는 식문화 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되는 음식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농가주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담당 670-2338

## 바다목장화 체계적 추진

### 올해 수산항에 총 50억 투입

우리군이 최근 고갈되는 연안의 자원회복과 이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손양면 수산어촌계 마을어장 일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국비 25억원 등 총 50억원을 투입해 인공어초, 방파시설, 종묘방류, 레저관광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인공어초 3종 98기와 방파시설 1기를 시설한데 이어 올해는 10억원을 투입해 인공어초와 방파시설을 계속 설치하는 한편, 종묘방류와 함께 시설 설치에 따른 효과조사(자원량 조사)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바다목장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대형 시행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달 중 관리위원회를 개최,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이와 함께 최근 수온상승과 영양염의 부족으로 인한 갯녹음 현상으로 어류의 산란장으로 이용되는 해조류가 점차 사라져 어족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올해 2억원을 투입해 갯녹음 암반 해조류 부착사업과 문어증식을 위한 소형어초 시설사업도 별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담당 670-2740

## 웰빙농산물 산채재배 확대

### 농업기술센터, 올해 3헥타 조성 소득창출

우리군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웰빙 농산물로 각광받고 있는 산채의 생산기반 조성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2억 8,500만원을 투입해 산채재배단지 3헥타를 조성, 부가가치가 높은 산채의 종묘 및 묘목을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할 산채종자는 참취, 고려엉겅퀴, 부지깥이, 산마늘 등이며, 종묘는 수리취, 눈개승마, 곰취, 곤드레, 산마늘, 누룩취, 묘목은 헛개나무와 두릅나무 2종으로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 지대별로 적합시기에 입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조기와 연화기, 산채 솥, 저온저장고 등 21개 시설

과 장비를 지원하고, 차광하우스 10동도 설치된다.

지원대상은 면적기준으로 종자 1ℓ 이상, 종묘 및 묘목 330㎡ 이상을 신청한 농가이며, 유통시설은 신청면적이 495㎡ 이상, 생산시설은 하우스 재배면적이 330㎡ 이상 신청한 농가다.

농업기술센터는 산채재배기술이 축적되고 산채재배 확대가 가능하며, 토심이 깊고 유기질이 풍부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고품질의 산채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나 생산자 단체로서 산채 전업농으로 발전 가능한 농가를 우선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담당 670-2369

## 야생동물 퇴치기 45곳 설치

### 우리군, 설치비 60% 지원 총 119곳 완료

우리군이 올해도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7천750만원을 투입해 45농가에 태양전지식 야생동물 퇴치기(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별 7개소씩 42개소와 지난해 피해가 컸던 3곳 등 45곳을 선정, 농작물 성장기 이전에 피해예방시설을 완

료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우선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림어업의 피해가 있는 지역 중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설치면적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곳 등이다.

▶문의 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670-2183

## 송이밸리 올부터 본격 운영

### 백두대간·목재문화체험장 연내 준공

송이밸리에 위치한 산림문화휴양관이 지난해 개관 후 3천여명이 이용하면서 자리매김한 가운데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산림도시로서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국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7월 송이밸리 산림문화휴양관을 개관하고 이용객 편의증진 및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오는 7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짚 트랙을 준공하고 연말까지 목재문화체험장을 마무리하면 종합적인 산림휴양지로서 변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짚 트랙 준공을 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객실 10개와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는 산림문화휴양관은 바비큐장, 야외화장실, 급수시설 등을 보강해 연중무

휴로 계속 운영된다.

군은 올해 자연친화적이고 고객 만족을 위해 관광 및 체험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며 배나무 한그루 갖기 체험, 가족과 함께 '한 여름 밤의 영화 이벤트',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숲길 트래킹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백두대간 작은 식물원, 어린이 놀이터, 잔디광장, 덩굴쉼터, 계류 조성, 숲 체험 모노레일 등은 준공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이 자연생태계와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지역발전과 관광거점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알찬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므로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경영담당 670-2634

## 군도 5호선 명품해안도로 기대

### 하조대 IC와 연결 추진...관광활성화 도움

하조대 IC와 낙산(양양읍 조산리)을 연결하는 양양군도 5호선 확·포장사업이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인 가운데 동해안 최고의 경관도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군도 5호선은 지난 2002년부터 손양면 송전리~여운포리 2차선 구간 8.5km를 4차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오산교를 가설하는 등 주요 해안관광지 연결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교통망 확충의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올해 1억원을 투입해 손양면 동호리~여운포 구간에 주택이 밀집돼 이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상운리 제방도로를 활용해 하조대 IC와 연결하는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삼고 시설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도 5호선 연결사업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등을 통해 그동안 국비 211억원 등 총 257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앞으로 130억원을 추가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이미 조성된 자전거 도로와 함께 동해안을 따라 뛰어난 바다 조망이 가능한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호해변~수산항 마리나~솔비치~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및 낙산해변(낙산사) 등 양양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연결하는 명품 해안관광 도로가 탄생해 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군도 5호선은 낙산대교에서 손양면 동호리 해안단구까지 완료했으며, 하조대 IC와 연결을 위해서는 4.26km가 남아 있어 상운리 제방도로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양양군도 5호선이 하조대 IC와 연결되면 현재 동호리 해안단구를 감삼하며 곧장 동해고속도로와 연결될 수 있어 피서철은 물론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명품 해안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 침체된 해안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군도 5호선 확·포장 공사는 현재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14년 여운포리까지 완료한 뒤 상운리 제방도로와의 연결공사가 추가로 추진될 계획이다.

▶문의 건설방재과 토목담당 670-2773

## 상습침수지역 사라진다

### 양양읍 남문리·손양 가평리 정비사업 추진

우리군이 최근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민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호우 때면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양양읍 남문리와 손양면 가평리 일대에 대해 정비사업을 실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손양면 가평리는 지형적 특성으로 침수위험도가 높고 홍수기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유출이 빨라 물난리를 겪는 등 생활불편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올해 총 10억원을 투입해 장마철 전에 배수시설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은 이에 따라 손양면 가평리를 1.2지구로 나눠 1지구는 배수로 393m, 수로관 171m, 2지구는 배수로 554m, 암거 및 옹벽등을 설치해 침수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재해 규모·빈도가 많아져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침수방지 정비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있다.

이한빈 건설방재과장은 "최근 정부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양양군도 이에 따라 안심 국토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북면 법수치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문의 건설방재과 재난방재담당 670-2768

## 우리군 기획관리 강화 추진

인원보강·업무확대...핵심사업 컨트롤 기대

우리군이 주요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면밀한 관리를 위해 기획감사실 기획계의 업무분장을 강화하고 인원을 보강하는 등 본격적인 기획관리에 나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이번 인사에서 기획계의 업무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담당을 포함해 기존 4명에서 6급 담당요원 1명을 추가로 배정해 총 5명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조정했다.

특히 군정의 핵심사업이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조정역할이 미흡했다는 평가에 따라 각종 핵심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업무를 적극 지원하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국비확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연동성이 높은 세부 추진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사업의 기획에만 치중하던 역할에서 벗어나 각종 핵심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해내는 전문적인 기획 관리로 확대 개편된다.

이와 함께 각종 민자사업유치에 따른 기업분석이 미비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분석 체계화 관리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이와 관련, 군정의 핵심과제 추진시 전문가 집단과 중앙부처 출향인 공무원 등을 참여시키는 실무형 자문단을 구성, 실질적인 군정비전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군이 이번 인사를 통해 기획관리분야의 탄력적인 업무분장과 권한강화 등 기획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요 핵심사업의 활발한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박상민 기획감사실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기획업무 강화가 군정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면밀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 『스마트 운전면허 앱』이용으로 스마트하게 안내 받으세요!

### 스마트 앱 서비스 주요 내용

- 운전면허 정보 및 민원 안내, 일정조회 등
- 기능·도로주행 교육동영상 제공으로 운전면허 취득편의 제공
- 적성검사·갱신·7년 무사고, 외국·국제·군면허등 면허발급 안내
- 지역별·가까운 시험장 찾기를 통해 전국시험장 위치정보 제공

### 다운로드 방법

Play 스토어에서 스마트 운전면허 또는 운전면허 검색 다운  
※ 교통알림e :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앱

### 궁금하신 사항

☎ 1577-1120, [www.koroad.or.kr](http://www.koroad.or.kr)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DTV KOREA의 공동주택 공시청설비 지원 프로젝트 지상파 디지털 방송,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무료로 시청하고자 하는 입주민들께서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9세대이하(4세대이상) 공동주택 공시청설비 무상지원(시범사업)]

구분	내용
지원 대상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대이하(4세대이상) 전용면적 85제곱미터(25.7평)이하로 구성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세대 이상의 다가구 주택(100% 지원)</li> <li>● 고급빌라 및 오피스텔(50% 지원)</li> <li>※ 150세대미만 아파트(50% 지원)</li> <li>※ 150세대이상은 '디지털시청100%재단'에 신청</li> </ul>
사업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3월 1일 ~ 12월 31일</li> <li>(19세대이하 공동주택은 선착순 지원으로 한시적인 시범사업임)</li> </ul>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a href="http://www.dtvkorea.org">www.dtvkorea.org</a>)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li> <li>● 이메일(<a href="mailto:dtvkorea.org@gmail.com">dtvkorea.org@gmail.com</a>) 또는 팩스(02-3219-6375)로 신청</li> <li>● 콜센터(1644-1077)에 직접 신청</li> <li>● 지상파 직접수신을 희망하는 4인 이상의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신청</li> </ul>
시공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 ⇒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확정 ⇒ 현장 실사 ⇒ 협약 ⇒ 시공</li> </ul>

입주자 대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TV공시청설비가 훼손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TV KOREA 홈페이지([www.dtvkorea.org](http://www.dtvkorea.org))에 있는 '유권해석 안내 자료집'을 참고하세요.

DTV KOREA 홈페이지 [www.dtvkorea.org](http://www.dtvkorea.org) / 콜센터 1644-1077



## 기초질서 위반사범 특별단속 안내



기초질서 실천으로 우리나라 세계최고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연중 실시  
속초경찰서장

- 경찰에서는 선진기초질서문화 정착을 위하여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선진질서 정착을 위하여 기초질서 지키기에 동참합시다.
  - ▶ 단속기간 : 2013. 3 ~ 연중
  - ▶ 단속대상 : 광고물 무단배포, 오물투기, 플레카드 무단 게시 등
- 선진 기초질서문화 정착으로 수준 높은 관광도시를 만듭시다.

## 강원도의 봄, 눈새바람

술~술 부는 봄바람~ 쌓인 눈 녹이고~ 어느덧 3월의 봄바람이 스며든다. 강원도의 봄은 유난히 바람이 많다. 우리 지역에 잘 알려진 양간지풍 외에 눈새바람이 있다. 눈새바람은 오호츠크해 부근에서 한랭습윤한 북동풍이 영동지방으로 불어와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영서지방에 핀(fohn) 현상에 의해 고온건조한 바람으로 부는데, 강원도 늦봄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핀(fohn)은 바람이 산 표면에 닿아 그 바람이 산을 넘어 하강기류로 내려와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에 의해 그 부근의 기온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따뜻하고 건조하며 거의 모든 산과 산악의 풍하측(바람이 밑으로 불어내리는 쪽) 사면으로 하강하는 돌풍을 뜻한다. 이것은 원래 알프스 산중에서 발생하는 국지풍의 명칭이었고, 북아메리카의 록키산맥에서는 치누크(chinook), 리비아에서는 기블리(ghibli), 아르헨티나의 안데스 산맥에서는 존다(zonda)라고 불린다.

우리나라의 핀 현상은 북서계절풍이 탁

월한 겨울철에는 백두대간의 동쪽 사면으로 나타나고, 늦봄부터 초여름까지는 영서지방으로 나타난다. 봄에 영서지방으로 눈새바람이 불면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농토와 농작물의 고사 피해가 생기기도 하는 반면, 영동지방은 습하고 저온현상이 나타난다.

핀 현상은 백두대간과 동해바다가 있어 생기는 자연 현상이다. 강원도의 독특한 기상현상은 이중환의 '택리지', 오영수의 '요람기' 등에 나오는 것처럼 문학이나 예술 활동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봄이 주는 포근함과 설렘 등의 다양한 이미지 때문에 봄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따뜻했다 추웠다를 반복하는 요즘 날씨가 봄이 올 듯 말 듯 기다리는 설렘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노래 '봄이 오는 길'의 가사처럼 어차피 찾아오실 고온 손님이기에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 속초기상대 제공

##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세요!

희망복지지원단이란?  
- 경제적, 인문적,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 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군구 전담조직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족해체, 경제적 기능상실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  
-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 도움을 드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직접 신청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를 알고 계신 친족, 이웃주민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희망복지지원단  
- 전화: 129 양양군청 콜센터 670-0129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670-2293  
- 읍·면사무소: 양양읍사무소 670-2610 서면사무소 670-2339 손양면사무소 670-2636  
- 현북면사무소 670-2640 현남면사무소 670-2409 강현면사무소 670-2409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공유토지(2인 이상 공동 소유의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2. 22. 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은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5. 5. 22.(3년)

◇ 적용지역 : 전국일원

◇ 적용대상

-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신청함

◇ 수혜사항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토지분할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부서(☎ 670-2152, 2151)로 문의 바람

## 해빙기, 전기안전관리 요령

- 기온이 상승하면서 풀어진 전선연결 부분의 절연테이프는 다시 감아준다.
-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 침하하는 옥내 전기배관 손상으로 화재 및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시설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 겨울철 동안 전열기의 빈번한 사용으로 접속부가 헐거워지거나 파손된 콘센트는 새것으로 교체 사용한다.
- 비가 잦은 봄철 및 여름철에 대비하여 습기가 많은 지하실은 누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보일러 등 전기기기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접지(어스)시설을 한다.
- 누전에 의한 화재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매월 1회이상 적색시험버튼을 눌러 고장여부를 확인한다.
- 전기안전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번호없이 1588-7500번)

##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 주택연금이란 : 어르신께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부부 모두 평생동안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가입대상 : 부부 모두 만 60세이상, 1주택만을 소유(부부기준)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오피스텔, 상가주택은 제외)

◇ 월지급금 :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가격 2억, 연령이 70세인 경우 약 67만원 수령

◇ 연금 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월지급금을 평생 지급 받는 제도
- 종신훘합방식 : 목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 받는 방식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 김경화실장 ☎ 033)259-3615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통학차량 집중 단속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하여 속초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니 운전자들은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벌점 현황

위반행위	범칙금				
	승합	승용	이륜	벌점	
속도	20~40	7만(10만)	6만(9만)	4만(6만)	15점(30점)
	20km/h	3만(6만)	3만(6만)	2만(4만)	없음(15점)
신호위반	7만(13만)	6만(12만)	4만(8만)	15점(30점)	
보행자	횡단방해	7만(13만)	6만(12만)	4만(8만)	10점(20점)
	보호불이행	5만(9만)	4만(8만)	3만(6만)	
통행금지제한	5만(9만)	4만(8만)	3만(6만)	-	
주정차	5만(9만)	4만(8만)	3만(6만)	-	

\*승합은 승합, 4톤초과 화물, 특수·건설기계를 말함.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08:00 ~ 20:00 법규위반시 ( )의 범칙금·벌점 부과됨.

나. 어린이 통학차량 등 법규위반 단속

위 반 행 위	범칙금(승합차 기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위반	5만원(10점)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확인 의무위반	7만원(15점)
어린이보호차 탑승의무 위반	7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유사도장 및 표시금지위반	3만원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미비치	과태료 3만원

## 양양군 수채화 동호회원 모집

양양군 수채화 동호회에서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과 함께 정기적으로 작품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채화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모집기간 : 2013. 4. 30일까지

- 연 락 처 : 010-4236-7557(박현희)

## 119는 모든 긴급민원 부서와 바로 연결됩니다!

◇ 119신고 연계 긴급전화 특수번호

121(수도), 128(환경), 1366(성폭력), 1577-1366(이주여성), 1388(청소년폭력), 지역도시가스, 1577-0199(자살), 1577-1389(노인학대), 1577-1391(아동학대), 1588-3650(재난), 1330(관광통역안내), 1345(외국인종합안내), 1544-4500(가스)

속초소방서

모두가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3월11일~4월19일(6주)

● 누가 신고하나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입은 청소년

학교폭력이란?  
◇ 단순 폭행이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돈·물건을 빼앗는 공갈 ◇ 협박 ◇ 강제적 성추행 ◇ 속하거나 헐뜯 ◇ 따돌림 ◇ 성폭력 ◇ 인터넷·SNS를 통해 음란·폭력적인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

●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해학생이 자진신고한 경우  
- 최대한 신중하며,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합니다.  
◇ 피해학생이 신고한 경우  
- 비밀을 철대 보장하며, 상담·치료·현모양범·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신고하세요!  
◇ 경찰서 청소년계(생활질서계)나 지구대·파출소 방문 신고  
- 가족이나 선생님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 재3차(가족, 교사, 친구)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117전화·게시판, 이메일, 문자, SNS 등 이용 신고 가능  
-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 전국 국번없이 117  
· www.safe182.go.kr

## 2013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금 선발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부모님, 학생이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애를 입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1급~4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261-5000)

□ 장학금 지원내역 (년 4회 지급 - 4,5,10,11월말 지급)

▶ 초등학교 : 분기 20만원 ▶ 중학생 : 분기 30만원 ▶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신청기간 : 2013. 3. 4 ~ 4. 30(4월 15일까지 조기 접수 요망)

- 3월에 신청하면 4월말, 5월말, 10월말, 11월말에 장학금 지급  
- 4월에 신청하면 5월말, 10월말, 11월말에 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우:200-93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23-1번지 지원업무담당자

※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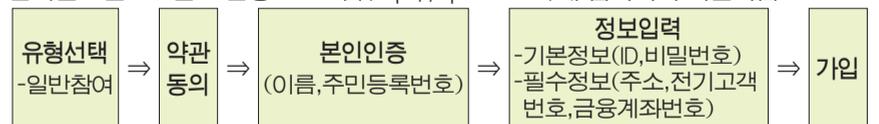
□ 상담전화 및 인터넷 상담 : 261-5000, 080-749-7171, www.ts2020.kr접속

## 녹색생활의 첫걸음! 탄소포인트제 참여

♣ 참여대상 : 전력 개별계량기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및 연립·아파트 거주세대

♣ 참여방법

온라인 : 탄소포인트 운영프로그램(<http://cpoint.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군청 및 읍·면사무소 탄소포인트 참여코너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가입

- 준비해야 할 것 : 전기요금 영수증과 통장(인센티브 지급 계좌)

♣ 참여시 혜택

참여 인센티브 물품 제공 ⇒ 벽시계 또는 멀티탭 개별 4구

전기사용량 절감시 ⇒ 절감율에 따라 연 만원에서 사만원의 현금 등 지급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양양군 환경관리과 ☎670-2180

양양읍 ☎670-2613 서 면 ☎670-2620 손양면 ☎670-2635

현북면 ☎670-2387 현남면 ☎670-2654 강현면 ☎670-2661